

물도바 2 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9년 7월 16일(화) ~ 2019년 7월 23일(화) (7박 8일)
2. 팀 NO : 2019-
3. 국가팀명 : 몰도바 2팀 (사역지: 키쉬나우)
4. 팀 장 : 강남석 (서명) 서기 : 정종원 (서명)
5. 보고일자 : 2019년 8월 4일(일)
6. 보고내용 :

1. 상세사역 내용 및 총평 2. 추천할 내용 (파란글씨)	몰도바 2팀의 사역형태는 크게 <u>현지교회협력사역</u>, <u>어린이 사역</u>, <u>찬양사역</u>, <u>공원전도사역</u>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 일정별 사역내용은 '10.사역내용'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1. <그레이스언약교회>협력사역-예배, 어린이사역(주일) ▷ 내용: 특송-한국어 찬양 2곡(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기타단주, 탬버린, 카사바, 에그 연주 인형극-부자와 나사로(교회대여) 어린이사역-도어벨 만들기, 한복접기, 포토프린트 ▷ 평가: 한국어 찬양은 가사 전달이 어려워서 의미전달이 잘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가 되었다면 루마니아어로 가사를 적어서 빔으로 미리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의 가사를 '스데반 통해'와 '몰도바 통해'로 개사하여 불렀는데 부르면서 선교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리듬악기들이지만 몰도바에서는 생소한 것으로 보이며 큰 관심을 보임. 리듬악기는 교회에 기증하고 옴. 인형극은 아주 효과적인 전도매체가 되었음. 당일 예배가 결혼식을 겸하여 있어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다 완전 집중하여 인형극을 관람하였음. 인형극 팀도 전날 어린이사역에 미리 한번 공연한 후라 더 능숙한 공연이 가능했음. 교회측에서 인형이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양으로 큰 관심을 보였음. 2. 어린이 사역(인형극 사역) ▷ 내용: 키슈나우에서 차량으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올케이 지역에 위치한 니콜라 이에프가 지역(작년 사역에 방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어린이 대상 행사에 참여하여 그레이스언약교회 찬양팀과 함께 어린이사역을 진행함. 성인 포함 90여명의 인원이 참석함. - 찬양사역: '예수 사랑하심은'과 '나의 발은 춤을 추며' 찬양 2곡을 함께 부르며 울동을 가르쳐주어 함께 찬양함.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라 전체 아이들이 함께 따라할 수 있었음. - 인형극: 몰도바에서 처음 진행한 인형극이고 장소가 야외에서 진행되어 당황스러운 면이 있긴 했으나 선교팀이 협력하여 신속히 준비하여 무리없이 인형극을 진행할 수 있었음. 테이블 밑에 인형을 미리 두고 테이블 뒤에 숨어있다가 인형을 들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옆막이 없이도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었고 뒤에 축구골대 등을 이용하여 뒷배경을 붙여서 넣기는 방식으로 무대설치를 하였음. ▷ 평가: 방문 시 이처럼 대규모 행사가 준비된 것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작년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예상외로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가 되어 준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활동이 진행된 공간도 작년과 달리 야외에서 진행되어 준비한 활동이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 선물로 준비한 마스크 팩이나 반바지, 사탕 등은 잉가(옥사님 딸)가 지혜롭게 배분하여 문제가 없었고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빵, 음료수)로 풍성한 나눔의 자리가 되었음. 대여해온 포토프린터로 사진을 출력해서 주니 반응이 좋았음. 포토존을 설치하기보다 우리가 준비했던
--	--

	대로 간단한 출력물을 들고 사진촬영하면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활동시간 및 활동내용이 잉가를 비롯한 교회 찬양팀에서 잘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반응이 좋았고, 특히 인 형극은 현지어로 녹음되고 배경음향까지 깔려 아이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고 흥미 있어 하였음. 더구나 인형극 내용안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있어 인형극 을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전도의 효과가 충분하였다고 생각됨. 내년에도 몰도바에 2 팀을 파견할 계획이라면 한 팀은 반드시 인형극을 준비하여 어린이 사역 및 전도사 역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 다음 팀은 공연 장소가 야외 혹은 교회 두군데로 진행될 수 있으니 공연진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음. 3. 찬양사역 및 공원전도사역 ▷ 내용: 공원이나 터미널 전도시 함께 찬양사역을 먼저 진행하고 일대일 전도를 시작 함. 가정자매의 인도로 찬양을 진행하고 현지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함. 1)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2회 2) 예수 사랑하심을 3) 나의 죄를 씻기는 4)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5) 나의 발은 춤을 추며 6)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2회(손들고 축복하며) 일대일 전도는 이름표에 확대하여 코팅한 전도책자 그림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해 보았는데 이야기에 더 주목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음. 작년에는 전도지에 볼펜과 사탕을 나누어주었는데 올해는 전도지와 마스크팩, 사탕을 나누어줌. ▷ 평가: 작년 사역평가대로 파트를 첨가하고 또 악기를 추가하여 더 짜임새 있는 찬양 이 되었음. 현지 사역경험을 토대로 좀더 수준있는 찬양이 가능하다고 판단, 나의 발은 춤을 추며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와 같은 조금 더 동작이 어려운 찬양을 추가했는데 역시나 잘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인원이 많이 모인 아브간 공 원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음.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앞으로 초청하여 시범을 보이게 하고 선물을 나누어주기도 함. 일대일 전도 시, 전도지 언 어가 러시아어표기를 사용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표기형태라서 젊은이나 어린이 에게 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이해할 수 있는 젊은이나 중장년, 노년층에게는 사용가능하기는 했음. 다음 사역 때는 현재 통용되는 알파벳표기형태의 전도책자를 확인하여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함께 나누어주는 선물로 볼펜보다는 한 국 마스크팩이 유명해서인지 더 좋아하는 것 같았고, 사탕은 우유가 들어간 캐러멜 형태였는데 그런 종류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다음엔 사탕을 젤리나 츄파춥 스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공들이 형태의 젤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3. 개선할 내용	역시 지난 선교와 마찬가지로 선교일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에는 작년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선교팀이 스케줄을 일자별로 명기하여 잉가에게 전달했지만 스케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팀에서는 굉장 히 많은 부분 청소년 사역과 어린이 사역에 준비를 집중했는데 정작 선교지에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청소년 사역이나 어린이 사역이 불가능했다. 아마도 실망한 우리 팀의 모습 을 보고 잉가가 니콜라이 예프가 지역에서의 어린이 초청행사를 급박하게 계획한 것 같 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미리 계획하지 않 았던 니콜라이예프가에서의 초청집회를 통해 너무나 많은(잉가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참석했고 인형극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주었음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계획과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 인형극은 정말 좋은 전도매체가 되는 것 같다. 다음 몰도바팀은 접이식테이블(현지조달)

	과 성능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비하여 공원사역시 인형극을 제대로 공연해보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잉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작년의 평가대로 올해는 그레이스연합교회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과 우리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이상적으로 조화되어 이루어진 사역이었다. 현지 교회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인형극과 찬양을 준비하여 잘 조화된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포토프린터가 아주 유용한 행사와 선교지 사람들과의 친목도모 수단이 되어주었고, 사진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넣음으로써 이들이 오래도록 우리 팀과 복음을 기억하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선교위원회앞 건의사항	몰도바의 그레이스연합교회는 복음적으로 잘 세워져서 현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판단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전도사역과 기타 사역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배장소(현재 한화 70만원 정도의 교회월세가 소요됨)와 차량(15인승, 에어컨 가동가능 중고차량, 한화 2천만원 정도 예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교위원회에서 몰도바 현지교회를 선교위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방문하여 목사님 가족의 영적 상태와 또한 그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나 활동능력을 판단하셔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활용한 인형극과 같은 활동들이 더 활발히 준비되어 지속적으로 있을 각국 선교사역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인형극 대본이나 인형 등을 조금 더 보충하고, 실제 공연환경(야외, 실내 등)에 따라 공연방법 등을 체계화하여 연습하도록 하여 인형극을 활용한 전도사역에 비중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역량이 안되는 모든 팀에 활용하기보다 학생이나 청년이 포함된 사역팀에 인형극을 배정하여 잘 연습하도록 하면 좋은 선교도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포토프린터는 조금 더 여유있게 준비하여 선교가 겹치는 방학팀들이 모두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7. 현지 및 기사 정보

• 정치/경제	*정치상황 -1991년 8월 27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몰도바는 1994년 7월 29일 신헌법을 채택하였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정부형태를 가진 몰도바는 2001년 4월 4일 블라디미르 볼로딘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5년 재선에 성공하여 2009년 9월 퇴임 후, 미하이 김푸, 블라드 필라르테에 이어 현재 마리안 투푸가 권한대행 중이다. 1994년 새로 채택되고 2000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의회는 일원제이다. 2001년 2월 총선에서 몰도바공산당(CPM)이 압승하였으며, 정국은 점차 안정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공산당의 기본성격상 정치적·경제적으로 구소련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5년 3월 6일 총선에서 몰도바공산당 56석, 민주몰도바를 록 34석, 기독교민주인민정당 11석 등을 획득하였다. 바실리 탈레프가 초대 총리에 임명되었다. 인접국가의 국제 분쟁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에 이르러 몰도바를 승인한 국가는 110여 개국에 달하였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60여 개국에 이르렀다. 1992년 들어서 몰도바 내 드네스트르강 동안(東岸) 지역에서 슬라브족과의 무력충돌이 일어났는데, 몰도바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루마니아와 연대가 매우 강한데 대한 저항이다. *경제상황 -몰도바는 동유럽, 나아가 유럽 전체에서도 최빈국이다. 구소련 탈퇴 후에
---------	--

	타 공화국들과의 교역량이 줄어들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몰도바의 1인당 GDP는 PPP 기준 2015년 4,973\$으로, 유럽 최빈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근래에(1990년대 즈음에) 내전으로 고생했던 콩고 공화국보다 낮은 수치이다. 명목 1인당 GDP는 라오스와 비슷한 수준의 1,725 달러이다. 참고로 북한의 1인당 GDP는 583 달러이다. 1993년부터 레우(Leu, 복수형 Lei)라는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6년 11월 7일에 IMF는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몰도바에 구제금융을 하기로 결정했다. 몰도바 노동력의 40%는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토의 83%로 경지이며 그 중 75%에서 곡물을 재배하고 있다. 곡물과 채소, 과일, 낙농품 등을 주로 생산한다. 몰도바는 농산품, 의약품, 기계류 등을 수출하여 축적한 자본으로 광물, 섬유, 기계 전자 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 종교/치안	*종교상황 다수가 러시아정교를 믿고 있다. 만난 사람들의 다수가 자신들을 정교인이라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10명 중 8명 정도) 정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1년 중 특별한 날 교회에 가서 사제를 통한 기도회 집중한다고 한다. 정교회 내부는 각종 성화들이 전시되어 있고 성화 앞에서 성호를 긋고 머리를 맞대는 등 이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정교인들은 마리아를 비롯, 12제자에게 모두 기도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사제를 통한 기도를 중시하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사제에게 비용과 함께 전달하여 기도를 부탁한다고 한다. 카톨릭처럼 사제를 통한 기도와 죄사함을 강하게 믿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제와 교회에 비용을 지불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선교 과정에서 인식된 문제점은 이들이 예수그리스도와 기본 복음의 진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우리가 전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개신교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감으로 우리가 개신교인임을 파악한 순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었다. 또한 선교 과정에서 비록 소수였지만 자신을 유대인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특히 JW(여호와의 증인)의 포교활동이 매우 적극적임을 볼 수 있었다. 공원에 가판대 형태의 전도지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게 해 두었고 실제 공원전도 시에도 자신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명함과 함께 소개하는 여자도 만났다. 몰도바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는 않으나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노상대중집회나 고성장치 등을 동원한 과도한 선교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치안상황 치안상황은 비교적 양호하였다. 공원이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시내에서는 경찰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었고 경제상황은 좋지 않지만 사람들의 표정이나 생활태도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경제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유럽 문화 때문인지 비교적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았고 거리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거리가 어두워서 저녁에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터미널 등과 같은 붐비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는 각별히 소지품 보관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선교언어에 대한 현지인의 이해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키쉬나우 거주자 중 10명 중 1명꼴로 몰도바의 공용어인 루마니아어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자신을 '루스키(러시아인)' 라고 하며 러시아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과거 연방에 속해있던 나라여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루마니아어를 배우지 않아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문화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신 젊은이들은 영어 가능자가 많아 러시아어를 사용

		하는 젊은이들을 만날 경우 영어를 대신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몰도바에는 몰도바어 연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어 가능자를 배치하는 선교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 기사 정보		성명	세르지우(Sergiu)	차종	벤츠 Sprinter 516 Bluetec
1일 비용	79.02	☎		추천 여부	적극 추천 (✓)
	109.42(에어컨차량)				보통 추천 ()
총 비용	674.76	이메일			적극 반대 ()
					한국어 가능 ()
		영어 가능 ()			
기사 평가		기사: 영어를 기본적인 수준으로 구사함. 직접 의사소통할 기회가 없었음.(항상 목사님가족이 동행하여 의사소통에 불편함 없었음) 친절한 편 차량: 에어컨 성능이 좋고 비교적 깨끗했음. 10명에서 15명(짐 없을 경우) 정도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종. 몰도바에는 10인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다양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은 것 같음. 차량 섭외 시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에어컨 유무. 15인 이용 가능 벤츠 차종이라고 해도 에어컨 자체가 아예 없는 차량도 많으므로 하절기 선교팀은 에어컨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함.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Vila Verde Hotel (빌라 베르디 호텔)	2인1실	106	온 수	✓	☎ (+373 22) 28 80 03, 28 80 04
	3인1실	152	냉 난 방	✓(난방확인못함)	
	기타		아침식사	✓(뷔페식)	이메일 www.vila-verde.md reception@vila-verde.md
숙 소 평 가	키쉬나우 중심가에서 가까운 호텔로 교회나 사역중심지인 공원 이동시 30분 이내로 소요되는 좋은 위치. 건물은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프론트), 2인실, 3인실 이용가능. 팀문화 있음. 에어컨 상태 좋음. 욕실 상태 좋고 온수 원활하게 사용가능. 조식이 뷔페식으로 제공되는데 메뉴가 다양하고 한국인 입맛에 맞음(빵류, 과일류, 채소류, 달걀요리, 소시지나 햄류, 요거트, 시리얼, 커피, 홍차). 방에 전기포트가 없어서 프론트에서 대여해보았으나 석회수가 밑에 말라붙어있어 위생상 좋지 못함. 필요시 한국에서 가져갈 것 추천. 전기콘센트는 한국과 동일하므로 사용가능. 3층 사용했는데 적절했음. 공용화장실이 각 층 가장자리에 있어서 이용편리(룸 화장실보다 변기수압도 높고 깨끗함). 수건매일 교체제공.				

9.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Ana		중
Erosenco Irina		중
Kate		중
Ursache Irina		중
Irina		중
Vlada Plugari		중
Adriaau(Adriama) Para		중
크리스티나		한국어학습중
이왕		
Anastasia		
Ann		

10. 사역 내용

일자	사역일정 및 계획	사역내용	비고
7월 17일 (수)	- 키쉬나우공항도착, <그레이스 언약교회>방문, 사역장소 확인, <빌라 드 베르디 호텔> 이동, 체크인 - 장보기 및 호텔에서 내일 사역준비 - 푸쉬킨 공원 노방전도	<그레이스언약교회>방문 -스테판 목사님 사역지인 교회 방문하여 사역과 관련한 장소 확인, 인형극 상영 시 무대와 동선, 배경막 설치 가능성 등 확인 -구입해 간 프로젝트 및 신디의 확인을 위해 교회 3층 사무실 방문하여 협의 및 확인 - 선교사역 일정 협의 -함께 정식을 먹으며 선교사역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우리가 예상했던 토요일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스쿨과 주일 청소년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음. <푸쉬킨 공원>노방전도 -어린이 놀이터 주변을 방문하여 놀이하고 있는 어린이들 앞에서 준비한 잔알을 부름, 함께 율동도 하고 말리서 잔알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음. 공원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첫 사역이어서 서툰 부분들도 많았음.	-호텔 체크인 후 들어와서 전도물품 정리 등 준비가 많아 정작 필요한 찬양준비를 많이 못하고 나가 아쉬웠음. 도착하자마자 사역을 진행한 것으로 감사함.
7월 18일 (목)	- 라푸시나 마을 축호전도 - 인형극 연습 - 무언극 연습	<라푸시나 마을> 축호전도 사역 -오전 10시에 호텔에서 출발하기로 하여 아침시간은 찬양사역 연습 실시 -어제 목사님께서 코를 다치셔서 목사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심. 사모님과 임가를 포함한 선교팀 라푸시나 마을로 출발. -작년에 축호전도 실시한 지역에 도착하여 3개조로 나누어 축호전도 시작함. 2개조는 라푸시나마을 주민센터장을 만나 마을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1개조가 마을을 다니며 축호전도 실시함. - 인형극 연습 -임가가 물도바어로 번역하여 현지 청년, 목사님께서 함께 녹음한 파일을 틀고 연습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너무나 목소리가 구분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음. 한국어 녹음을 틀고 자막처리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물도바어 녹음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연습을 실시함. - 무언극 연습 -배역을 확정하고 연기연습을 시작함. - 가영자매가 준비물품과 대본, 음향 등을 잘 준비해와 연습을 실시하였음. -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언극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연습이 완료됨.	-라푸시나 마을은 작년보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남. -마을 중간 즈음에 제분소와 제빵소가 있는데 점심시간 즈음해서 빵을 사러 차를 몰고 인근각지에서 율려움. - 시간을 잘 활용하여 전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7월 19일 (금)	● 버스터미널 전도 ● 어린이사역에 사용할 풍선불기, 사역준비, 찬양연습 ● 푸쉬킨 공원 사역	▪ <버스터미널> 노방전도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많은 사람이 주목할 수 있는 장소를 잡아 찬양사역을 시작함. -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 여기서는 준비한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것으로 진행하였음. 터미널에서는 어린이용 울동위주보다는 화음을 포함한 찬양사역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일대일 전도 시작. 3개조로 나누어 전도 시작. ▪ <푸쉬킨 공원> 찬양, 노방전도 -그리스정교회가 있는 공원 부근(센터)에서 찬양사역과 노방전도를 실시함. -어린이들이 많은 놀이공원 앞에서 찬양사역을 시작함. - 여기서는 어린이들이 많아 찬양에 대한 호응이 높음. 울동도 반복하여 실시하며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잘 따라하는 아이들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사탕으로 보상도 하며 호응 유도함. - 찬양사역 이후 노방전도 실시. 정교회 앞까지 진행하며 노방전도를 실시함.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찬양사역이 효과적이었음. 테이블이 준비될 수 있었다면 여기서도 인형극 공연을 계획해서 한번쯤은 진행해보는 것도 다음 사역팀에서 고려해볼만함.
7월 20일 (토)	● 인형극 울도바어 녹음파일 수정 및 배경음향믹싱작업 실시 ● 인형극 연습 및 사역준비 ● <니콜라이에프가 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사역 실시	▪ 인형극 준비 -미리 확인한 대로 울도바어 인형극 녹음파일을 선교팀이 공연하기 쉽도록 등장인물 간 간격을 주고 천국, 지옥 배경음향을 믹싱하여 수정함. 음향이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인형극이 더 흥미롭게 공연될 수 있었음 ▪ <니콜라이에프가 지역> 어린이 초청집회 -현지에 도착하여 사역을 준비함. 교회 찬양팀은 배경무대와 음향을 점검하고 선교팀은 인형극 배경막 설치와 테이블을 확보하고 음향 사용여부를 체크함. 포토프린터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일부 팀원은 사진촬영 및 출력작업 실시. -집회가 시작되자 현지 부모, 어린이 포함 90명 정도가 모임. - 집회 순서 1. 동글게 서서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 울동 2. 선교팀이 준비한 예수사랑하심을 찬양, 울동 진행 3. 찬양팀이 준비한 게임, 페이스페인팅 등 진행 4. 다시 대영을 동글게 하여 선교팀이 준비한 나의 발은 춤을 추고 찬양, 울동 진행 5. 인형극 공연 6. 찬양팀 게임 7. 선물 증정 및 간식, 사진촬영 - 집회 후 성도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작년에 공사중이었던 아동보호센터 건축 상황 확인.	-예상외로 야외에서 인형극이 공연되었으나 울도바어로 녹음한 파일로 준비한 덕분에 공연이 무사히 진행됨. 음향도 커서 전달에 우리가 없음. 배경막 등 전환방법등이 미리 협의되면 더 완벽한 공연이 되었을 듯. 찬양, 울동은 우리없이 잘 진행됨. 선물이 더 여유있게 준비되었으면 좋았을 듯.
7월 21일 (일)	● 주일예배 (특송, 인형극 공연) ● 아브간 공원 사역	▪ <그레이스언약교회> 주일예배 사역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드려지는 예배 참석. - 예배 순서 1. 찬양팀 위침 2. 선교팀 특송 - '내 진정사모하는'(1,2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2회 3. 선교팀 인형극 공연 4. 결혼예배 및 어린이 사역 5. 성도간의 친교 음식 나눔 <인형극 교회 공연에 관한 평가> - 테이블이 좀 짧기 때문에 감안해서 연습해야함. - 배경막 설치가 어려워 팀원이 들고 있어야 함. 힘들더라도 평평하게 잘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가운데를 잘 맞춰서 의자위치를 선정해야 함. - 교회는 인형극 공연에 최적화된 공간. 음향시설, 무대 등 완벽함. 따라서 다음 팀도 다른 내용으로 인형극공연을 준비하면 좋을 듯함. ▪ <아브간 공원> 찬양사역 및 노방전도 -아브간 공원은 항상 사람이 많지만 이날은 주일이라 더 사람이 많음. 사역팀이 오후 5시반쯤 도착했는데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 뜨거워서 해가 지는 7시까지 인근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해가 넘어가고 사람들이 모인 7시부터 찬양사역 시작함. - 찬양 사역 시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음. 여기서도 인형극 공연을 고려해보면 좋을 듯. 어린이 사역으로 효과적인 장소라고 생각됨. -일대일 노방전도도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활발히 진행됨. 마스크팩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많이 준비해서 전도에 활용하면 좋을 듯.	-예배시 사역팀 참여 일정을 미리 협의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아브간 공원 사역은 워낙 인원이 많고 사역가능시간은 길지 않으니 참고하여 일정 계획할 것

7월 22일 (월)	● 키쉬나우 시내 정탐 ● 목사님 가정 방문 및 선교팀 사역 평가 ● 공항이동	키쉬나우 시내를 돌아보며 사역가능한 지역을 생각해보았음. 시내에는 젊은이들이 많아 영어 유창한 사역팀이 온다면 시내중심부 사역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았음. 목사님 가정에서 사역평가를 진행해보았음. 인형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인형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묻기도 하셧음. 물도바어 녹음파일은 음향을 믹싱한 것으로 다시 목사님 가정에 전달하기로 함.	
---------------------------	---	---	--